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韠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도중
途中

저물어 외로운 객점에 드니 日入投孤店(일입투고점)
산 깊어 사립도 닫지를 않네. 山深不掩扉(산심불엄비)
닭 울어 앞길을 묻노라니까 鷄鳴問前路(계명문전로)
누런 잎 날 향해 날려 오누나. 黃葉向人飛(황엽향인비)

길가의 폐가
詠道傍廢宅

오래된 집 어느 해에 폐가 됐는지 古宅何年廢(고택하년폐)
담장마저 반 너머 기울어졌네. 墻垣半已傾(장원반이경)
빈 부엌에 남은 낟알 여태 있는지 空廚有殘粟(공주유잔속)
한낮에도 쥐들이 마구 다니네. 白日鼠縱橫(백일서종횡)

■ 역사기행

지리산(智異山)

▣ 향촌 권 오 창 (본원 자문위원)

우리일행은 1998년 8월 1일자에 지리산 화엄사와 도중에 남원 광한루 지리산 온천지역 방문을 며칠 전부터 예약하고 무더위를 무릅쓰고 순회 관광의 길에 올랐다.

서울지방에도 장마비는 그칠 줄 모른다. 일기예보에 우리나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호우경보가 영남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었다.

그러나 장마철에 별다른 일이 있을까 싶어서 큰 걱정 없이 아침 8시에 중부고속도로를 타서 서청주를 거쳐 대전에서 호남 고속도로로 달렸다.

빗줄기는 간간히 멈추었다가 내리는 간헐적인 경우였고 비 구름은 남쪽으로 이행하니 우리는 비를 피하며 가는 것이 아니고 비를 쫓아가는 꼴이 되었다. 일단 목적지가 지리산 밑의 구례군 화엄사이기 때문에 화엄사를 먼저 들리고 지리산 온천욕과 남원 광한루를 들러서 상경하도록 계획하였다.

지리산은 이미 지역방향에 따라 입출입 방향이 상이함으로 수십 년 전에는 경남 진주 방향에서 대원사 천왕봉 쪽으로 올랐고 또 경남 함양 산청 쪽에서 내왕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화엄사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명산에는 꼭 대찰이 있기 마련이다.

지리산도 우리나라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한라산과 아울러 5대 명산에 들어가고 일명 웅장한 산세를 보더라도 고래로부터 방장산이라는 별명이 붙어 다닌다.

지리산에도 이름난 절인 화엄사를 비롯하여 대원사 온천사 연곡사 쌍계사 실상사 태안사 등이 있다.

전라선을 통과하여 푸른 평야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어느덧 임실을 지나 남원골 춘양 터널을 지나니 빗줄기는 멈추고 따가운 햇볕이 쏟아진다.

하천 개울은 황류로 꽉 차서 포말을 일으키며 급류가 되어 도도히 흐른다.

국립공원 지리산 화엄사 입구에 도착시간은 점심시간이 지나 시계는 오후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다.

주차장 근처 지리산 관광 식당에서 산채 비빔밥으로 점심을 마치고 화엄사 쪽으로 차를 모니 이번 수해로 화엄사 입구를 지나서 포장도로가 유실되어 차량통행이 통제되었다.

차는 주차장에 대기하고 걸어서 화엄사를 향하는데 도로는 빗물로 수로가 되어 있고 화엄사 방향 오른쪽 계곡은 급류와 황류이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연상하는 계곡의 물줄기는 장관을 이루었다.

정말 물의 힘이 무서운 줄 실감을 하게 되었다. 산 구경 절 구경 보다도 물 구경이 더좋은 형편이었다.

전신에는 진땀이 흘러내렸고 신발은 도로의 물로 침수되었고 산속의 물은 양쪽으로 이루어 쏟아지는 장관은 정말 이런 장마 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진풍경이 되고 말았다.

드디어 최초의 일주문이 나타났다. 이 일주문에는 해동선종대가람(海東禪宗大

伽藍)이라는 현판이 뚜렷하다.

이 일주문을 지나 10여분 올라가니 절 앞쪽에 1간(間)1호(戶)의 일주문에는 지리산 화엄사 현판액이 있다. 화엄사의 전경이 눈에 들어오고 매미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룬다. 절을 찾는 관광객 불자들도 절로 가는 통로를 메운다.

울창한 지리산 숲속에서 새어나오는 찬바람은 얼음 덩어리를 만지는 것 같이 너무나 차디차다.

웅장한 대웅전 그리고 각황전(覺皇殿)은 규모가 크고 건축양식이 별다른 데가 있다. 문헌에 의하면 화엄사의 창건은 544년(백제 성왕 22년) 연기조사(烟起祖師)가 창건하고 신라 30대 문무왕 경오년에 영주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가 3층 4면 7간과 장육전 석조건물을 세웠다.

그간에 몇 번의 증축이 있었으나 1597년 (선조 30년)에 임진왜란의 병화를 입어 불타버렸으나 1636년 (인조 21년)에 각황전 보제루(普濟樓) 원통전(圓通殿) 응향각(凝香閣) 적묵당(寂默堂) 금강문(金剛門) 청왕문(天王門) 등이 복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화엄사라는 절 이름은 화엄경의 화엄의 두 글자를 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각황전은 정면 7간 측면 5간 중층 8작(作)지붕이 웅대한 불전으로 우리나라 절 중에서 유수의 대건축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때에 병화를 입은 후 1699년(숙종25년)에 재건에 착수하여 1730년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화엄사 각황전은 국보 제67호 각황전 앞 석등 국보 제12호 대웅전 보물 제299호 동5층탑 보물 제132호 3층 사자석탑 국보 제35호 서5층탑 보물 제133호 원통전 사자탑 보물 제300호로 지정되어 있다.

화엄사 입구를 지나 오른쪽에 근래에 세운 듯 한 고려 때의 대각국사 의천(義天)의 효대(孝臺)시비가 세워져있다.

이 시비(詩碑)를 소개해 본다.

적멸당전다승경(寂滅堂前多勝景)
길상봉상절멸애(吉祥峰上絶滅埃)
방황진일사전사(彷徨盡日思前事)
모혼비풍기효대(暮昏悲風起孝臺)

적멸당앞에는 경치도 빼어나고 길상봉은 봉우리 티끌도 끊겼네.

진종일 방황하며 지난 일 생각하니 저문날 가을바람 효대에 감도네.

화엄사의 뒤편은 노고단 삼도봉 반야봉 토끼봉 피아골이 있고 앞으로는 구례읍 평야지대를 바라보며 더 나아가면 섬진강에 이른다.

화엄사 정문에서 오른쪽은 남원 임실 방향이며 왼쪽은 하동 진주 방향이다. 산 너머는 거창 함양 쪽이다.

화엄사를 안고 있는 지리산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접경으로 우뚝 솟아 웅장한 모습을 나타내고 주봉 천황봉을 비롯한 연봉들은 늘 예측하지 못하는 일기 변화로 구름과 안개가 개었다가 피어나고 바람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도록 불규칙한 것도 먼저 알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소백산과 비슷한 데가 있다.

이 큰 산에서는 곰을 비롯하여 멧돼지 토끼 노루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각종 조류와 산채 약초의 명산지이고 지리산 록의 녹차의 원산재배지 이기도 하다.

각 절에서는 녹차를 만들어 마시고 있는데 이 녹차야 말로 정말 전통 한국녹차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은 지리산 노고단까지 차량통행이 되어 등산과 관광하는데 모두 쉬워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문제되고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개발의 한계를 많이 검토하여야 할 줄 믿는다.

지리산 만복대 산록과 밤재터널 산동에서 지리산 온천 지역으로 들어가면 불란서에서 성수라 불리우는 '21세기 기적의 물'이라고도 하는 게르마늄이 함유된 종합온천 레저지역이 있다. 이 온천수는 각종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신비스런 효험이 있다고들 한다.

서산에 지는 해는 귀경길을 재촉한다. 차를 몰아 남원 관광특구 광한루를 둘러보고 야간 불빛이 유성같이 흐르는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자 뉴스특보가 방송된다.

지리산에 집중 호우가 쏟아져 교량과 도로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지리산 대원사 계곡이 급류에 휘말려서 합동구조대와 119구조대 해양구조대와 주민의 협력으로 인명과 재난구조에 나섰다고 한다.

119구조대원도 두 사람이나 희생되고 헬리콥터도 추락 5명의 중경상자를 냈고 구급 인명구조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워낙 계곡물이 급류여서 강물을 통하여 사람들이 바다까지 떠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기상이변과 악화로 중국의 54년만의 양자강 범람, 예멘 이란 필기핀 일본 인도 등의 폭우와도 영향이 있는 지구촌의 재앙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방송은 전한다.

이것은 천재와 인재가 겹치는 자연재해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울 도착 밤12시 30분 무사히 귀경하였으나 지리산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잠못 이루게 하고 마음에 걸린다.

이번 지리산 화엄사 기행은 여러모로 건강과 역사탐방이라는 유익한 면과 지리산 폭우로 인한 재해대책에 대하여 반성의 여지를 남겼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만 필을 놓는다.

〈끝〉

■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인생의 4계절(2)

〈지난호에 이어서〉

인생의 봄 즉 청춘기의 특징의 하나는 '자아(自我)'의 발견이다. 즉 자의식이 마음 속에 나타나며 자기만이 간직하는 자의식이 생기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이 시절에 연애도 하고 실연도 한다.

나의 친구 중에도 이러한 경험을 심각하게 겪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어떤 친구는 다른 친구의 연인을 뺏어가기도 했다. 나는 중재인으로서 뼈아픈 경험을 한 일도 있었다.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성인이 된다는 점이다. 즉 교육을 마치고 성인이 되어 사회인으로서의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이다. 그런데 회고해보면 청년기 같이 희망이 많고 고민이 많은 시기는 없는 것 같다. 세계의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 이 시기에 발표되었다는 것은 주지되어 있는 일이다. 문학에서도 그렇고 예술에서도 그렇다. 물론 성숙된 면은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희망과 고민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들이 많다.

인생의 여름: 인생의 여름은 장년기(壯年期)를 말한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이 시절의 특징은 일하는 데에 있다. 사회인으로서 한 몫을 하는 것도 이 시절이다. 회사 생활·공무원 생활·의사 생활·교수 생활·예술가 생활·정치가 생활·자영업 생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회인으로서 활동하는 시절이다. 이왕이면 값진 일을 함으로써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인생은 없을 것이다.

여름을 주하(朱夏)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더운 여름은 태양이 작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태양의 작렬은 한 마디로 정열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여름은 뜨겁게 일하고 적극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시절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가장이나 주부로서도 단단한 자리를 만드는 시절이다. 30대를 넘어서 40대로 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획득하고 많은 경험을 하게 마련이다. 그만큼 책임이 커진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50대~60대가 되면 더욱 큰 희망을 가지게 된다. 사회적 출세에서도 그렇고 가족생활의 책임에 있어서도 그렇다. 한 마디로 안정된 인생을 기대하고 또 안정된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에는 일의 내용이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지 않았던 까닭에 비교적 단순한 길을 걸어도 좋았지만 오늘날에는 일의 내용이 복잡화하고 다양화된 때문에 종전과는 비교하기가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적극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요구되는 덕목이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의 취향이나 취미에 맞는 경우라면 적극성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흔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취향에 맞지 않는 일이라도 취향에 맞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일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지적되는 점이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면 그야말로 행복이 자기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첩경이다.

인생의 가을: 나의 분류에 따르면 숙년기에 해당한다. 자연계의 가을과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도 사람에 따라 가을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늦게 오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사람은 여름에 땀 흘려 일하고 가을에 수확을 얻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생의 여름에서 뼈저리게 일하고 인생의 가을에서 그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불교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병(病)·로(老)·사(死)를 피할 길이 없다. 여름철에 뼈저리게 일한 결과로 질병을 얻는 경우도 허다하다. 약 2천백년 전에 그리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유행했던 것으로 듣고 있다. "제일 좋은 것은 건강이고, 둘째로 좋은 것은 기량(器量)이고(기량은 지적 능력과 인품을 말한다), 셋째로 좋은 것은 정직하게 마련한 재산이다" 즉 건강이 좋고 마음가짐이 좋고 정직하게 벌어들인 재산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뜻이다. 이 말과 결부시켜서 나는 가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BC 322)가 남긴 명언을 생각할 때가 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건강하고 재산이 있어야 한다. 현인(賢人)이라고 해도 재산이 없으면 불행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현실주의자였다는 사실은 주지되어 있지만 그가 말하는 재산은 수전노를 치켜올리는 말이 아니고, 반대로 그는 부(富)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며 소비가 적절치 않는 경우에는 불행을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고리대금업자는 나쁘다고 주장했다.

건강하고 마음씨가 곱고 적절하고 정직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인생의 가을에서 산출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론이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고운 마음씨와 더불어 생활습관이 관건이 된다. 습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오늘날의 질병이 옳지 못한 습관과 쓸데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화되어 있다. 인생의 가을에서 바람직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습관과 스트레스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그리고 정직하게 만든 재산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권중달 교수 '생존, 변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출간

자치통감을 완역하여 출간한 뒤로 자치통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자치통감 행간읽기'를 계속하여 출간하고 있는 권중달 교수가 지난 5월 1일에 이번에는 그 네 번째 책으로 '생존, 변하는 시대에 살아남기'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전국시대에 호복을 받아들여서 국력을 키운 조(趙)나라의 무령왕, 배수의 진을 쳐서 승리로 이끈 명장 한신(韓信), 유교 국가를 건설하여 무장 세력을 잠재운 후한의 광무제 유수(劉秀), 삼국시대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조, 손권과 대결한 유비(劉備), 북조를 통일한 전진의 부견(苻堅), 현무문의 비극을 거쳐서 황제에 오른 당태종 이세민, 그리고 200년 간의 혼란을 접고 천하통일을 한 송태조 조광윤(趙匡胤) 등 일곱 사건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하는 시대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심도 있게 살펴 본 책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우리가 사는 시대란 끊임없이 변하는데, 역사를 통하여 그 변하는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후약방문'이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변하는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역사사건은 그냥 이야기 거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존의 방법을 제시하여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출판 삼화 발행, 값 15000원.

[권문의 노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www.andongkwon.org

권문의 노래를 안동권씨대종원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올려 놓았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안동권씨대종원 또는 안동권씨중앙종친회]

음악 : MP3파일 가사 및 악보 : 아래한글

이달의 시

낙화(落花)

꽃이 핀다는 것은
나무의 안에서 나무의 밖으로 꽃이 지는 것

내 안의 산벚꽃 여린 꽃잎들
포르르 포르르
바람 불어가는 어느 골짜기
허공에 수(繡)를 놓으며
뽀얗게 지고 있습니다

권경업 詩人
62才 안동·별장공파, 36世
(사)아름다운사람들代表